

인문학 번역론의 한 메타적 성찰*

전 성 기
(고려대)

1. 머리말

고명섭(2008: 37)은 “번역서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국내에 나와 있는 인문사회 고전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번역되어 있는지 누구나 절감할 것”이라며 언성을 높인다. 그는 “한국어 문장이 어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개념어가 낱림으로 옮겨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고 개탄한다. “원문의 뜻을 무수하게 왜곡한 범죄적 수준의 번역서들도 허다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잘못된 번역서가 일단 나오면, 저작권 연한이 지난 책이야 다시 번역하면 되지만, 저작권에 걸려 있는 책들은 재번역할 수도 없”으니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표현이 다소 격하기는 하지만, 그 속 내용에는 아마 적잖은 식자들이 내심 공감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도처에서 쉽게 접할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812-A00197).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인문학번역을 논하고, 인문학번역의 인식론이나 학문성 성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안스런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근자에는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의 조짐도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강정인 외(2002)의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번역 정책 연구』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그리고 총체적인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문학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번역의 쇠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번역을 대하는 인식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들은 “더 나아가 현재의 번역 상황을 재생산하는 데 암묵적으로 일조하고 있는 번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와 반성, 그리고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간 한국사회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한다.¹⁾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 낸 두 권의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교수신문』에서 엮어낸 두 권의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강대진(2004)의 『잔혹한 책읽기』, 『시대와 철학』의 번역 관련 특집들, 조재룡(2010)의 『번역의 유령들』, 박진영(2011)의 『번역과 변안의 시대』, 정혜용(2012)의 『번역 논쟁』 등도 번역에 대한 우리 학계의 번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의미있는 저술들이다. 인문학번역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거나,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한 시론적인 성찰에 족하기로 한다.

2. 번역학 인식론

어느 분야든 연구의 진척은 인식론적 성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번역학은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그 인식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은 드물다. 윤성우, 이향(2009: 113)은 “국내에서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검토는 유명우(2000)나 김지원(2000) 정도”인데, 이들의 상

1) 강정인 외(2002: i)는 이에 덧붙여 “한국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부응하기 위한 번역 도서의 선정, 번역 방법과 번역용어의 채택 등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번역은 주체적인 학문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 부분은 “한국에서의 번역학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번역학이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개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자들의 종합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 번역론으로 명시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경우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몇 되지 않고, 그 인식론적 성찰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긴 해도, 번역학 일반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들은 대부분 인문학 번역론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문학 번역론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을 해당 분야의 일정한 발전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 번역론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번역과 관련된 인식론의 글은, 영어권에서든 불어권에서든, 표현상으로는 “번역 인식론”과 “번역학 인식론”이 구분되지만, 내용상으로는—적어도 불어권 글들에서는—뚜렷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번역학 인식론은 번역학의 지식과 우선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학자 뫼(Pym 1993: 13)은 인식론을 “지식의 방법들, 범위,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정의한 바 있고, 윤성우, 이항(2011: 15)도, 이와 유사하게, 번역 인식론을 “번역에 관련되는 지식이나 인식, 흔히 번역(학)적 인식 또는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야”로 규정한다. 이들은 이 지식의 성격을 “번역(학)적 지식의 종류, 지식의 획득 방법이나 절차, 타당성, 정당성, 근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주문한다. 그렇다면 번역학 인식론을 표방하지는 않아도 부분적으로는 이와 관련되는 글들이 적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번역학의 “학”적 성격과 그에 따른 번역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은 대표적 번역 인식론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에게 번역 인식론의 과제는 “번역학 지식의 이론적 위상을 규정하는 것”이며, “번역학 담론들의 위상 문제를 제기하는 인식론적 메타이론의 성찰”이다.²⁾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히 실천지향적이다. 번역에 대해 어떤 유형의 담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살피는 것이다. 이는 그의 학문적 성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2) 라드미랄(2003: 148; 2009: 11) 참고. 그는 여러 글에서 지속적으로 번역 인식론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 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 학자일지 모른다.

번역학이란 학문 자체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인문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척도보다는 사회적 요구의 측면에서 실천적 유용성이 더 두드러진다. 라드미랄은 자신의 번역학 담론, 번역에 “대한” 담론도 번역을 “위한” 담론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번역학 담론이 좁은 의미, 혹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 담론’이기보다는 실천을 위한 실천학의 담론이기 때문에, 번역의 “이론의 이론”을 하는 것이 번역의 실천과 직접 맞물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한다(2003: 148-49). 자신의 번역학에 대한 글들도 번역의 실천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자신의 번역학에 대한 메타적 성찰 역시 실은 번역자들의 번역이라는 실천을 위한 것임을 그는 누차 강조한다.³⁾

라드미랄(2006a)은 자연과학 인식론과 다른 인문학 인식론의 특수성을 말한다. 그는 인문학을—실험심리학 같은 자연과학적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나—대개 엄밀성을 최대로 추구하는 것들과 이와 크게 대비되는 문학이나 철학 사이의 “인식론적 중간자”(un *entre-deux épistémologique*)로 규정한다. 문학과 철학이 사학과 더불어 인문학의 중심이 되는—“문사철”이란 거의 관용화된 표현에서 보듯이—우리의 인문문화와는 개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자(2009: 8-9)는 번역과 관련하여 세 층위를 구분한다. 번역 실천이 그 첫째 층위이고, 이 실천에 대한 고찰인 번역론이 둘째 층위이며, 셋째 층위는 인식론적 메타이론 층위로서, 과학성(학문성)의 위상 등이 논의된다. 그는 번역에서 이 셋째 층위가 첫째 층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번역에서 부딪친 난관을 헤쳐나가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묵시적일지라도 비체계적일지라도 번역론 없이 좋은 번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번역론의 번역 실천에 대한 영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식론적 메타이론이 이론에 내재적인 것이니 실천에 내재적인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성찰”이다. 이 성찰에는 반성적 비판적 성찰의 물음들이 부단히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라드미랄은 번역학이 규범적인 것, 기술적인 것, 귀납적인 것 등 다양한 접근법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그가 규범적 번역학, 기술적 번역학, 귀납적 혹은 과학적 번역학이라 부르는 것들

3) 라드미랄(2003: 150) 참고; 그는 여러 글에서 자신의 번역론이 스스로의 번역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로, 각각 그제, 어제, 내일의 번역학이라 불리기도 한다.⁴⁾ 라드미랄의 최근 글에서는 관점이 바뀌어 문제의 구분이 시기적 구분이 아닌 “기본적으로 방법론적인” 구분으로 제시되고 있다.⁵⁾ 그가 적극 권하는 것은 “실천학적 접근”이며 “오늘”의 번역학인 “생산적 번역학”이다.⁶⁾ 번역학의 핵심인 번역론이 환유적으로 번역학과 동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저자의 지적을 고려하면, 저자의 ‘생산적 번역학’은 ‘생산적 번역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번역론은 대상에 대한 지식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실천의 제어(maîtrise)”를 지향한다(라드미랄 2003: 162). 생산적 번역론은 번역 실천을 도와주는 ‘편익적 담론’들이기도 하고, 번역 시의 심리적 고충을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해소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치료적 담론”이기도 하다(라드미랄 2003: 57). 하나의 인문학 번역론이고자 하는 <탐구번역론>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⁷⁾ 탐구번역과 짝을 이루는 탐구적 번역비평도—근자의 번역비평에서 흔히 보듯이—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포스와 포스(Foss & Foss 2003)가 말하는 호의의 수사, 조언의 수사, 나아가 “초대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번역(학)에 대한 학술적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⁸⁾ 이른바 “잘못된” 번역은 대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탐구번역론은 오해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산적 번역론과 사뭇 다른 인식론적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도 물론 있다. 이항(2011: 202)은 홈즈(Holmes)에서 투리(Toury), 체스터만(Chesterman)에 이르는 “하나의 계보”를 언급한다. 이들의 입장은 ‘번역학이 방법론적 차원에서나 그 인식론적 차원에서 경험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입장이 그러하니 이들에게서 “경험과학의 잣대로 분류 불가능한 영역 전체”가 “번역학 지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방법론의 이름으로 인문

4) 귀납적 혹은 과학적 번역학을 라드미랄(2003:161)은 ‘내일, 나아가 모래의 번역학’이라 칭하기도 한다.

5) 라드미랄(2010:6)은 그 좋은 한 예이다.

6) 윤성우, 이항(2011)에도 이에 대한 소개의 말이 있다.

7) 전성기(2009a)는 이에 대한 글이다.

8) 전성기(2009c)는 ‘입자적 수사’와 대비되는 ‘파동적 수사’의 적극적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학에서 많은 가능한 연구들이 제외되었듯이, 경험과학 혹은 설명과학의 이름으로 번역학연구에서 의미있는 인문(학)적 연구들이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성우, 이항(2009: 118)에 의하면, 경험과학을 주장하는 번역학자 체스터만의 주장의 핵심은 “과학성”과 “객관성”이다. 체스터만의 관점에서 번역학은, 응용과학이나 해석학보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나, 적어도 실천을 중시하는 인문학번역의 관점에서는 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⁹⁾

라드미랄(2009: 9)은 인문학에 바슐라르(Bachelard)가 말하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인식론적 단절”은 없다고 단언한다. 사실 인문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 달리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제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¹⁰⁾ 고전 철학 전공자에게는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이들의 저술들의 번역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소쉬르(Saussure) 다시 읽기”가 그런 예의 하나이다. 라드미랄은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의 엄밀과학의 세 시기 구분에서 착안하여 이를 인문학에 적용하는데, 번역학의 인식론적 고려를 위한 것이다. 구분의 첫째는 “형이상학적 상태”로, 분야별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인문학이란 생각도 개념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는 “논쟁적 상태”로, 인문학이 서로 모르거나 대립되는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학파들로 갈려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태이다. 자연과학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패러다임 전환시에나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나, 인문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라드미랄은 지적한다. 라드미랄 자신은 “에큐메니컬 전환”(un tournant oecuménique)에 의해 세 번째 상태인 “실용적 상태”로 나아가고자 모색한다.

번역학의 역사를 현대에 국한하건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던, 첫째 시기는—라드미랄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으나—번역학이 인문학이나 여타 분야들과

9) 발라체스쿠, 스테판니크(Balacescu et Stefanink 2005: 637)는 ‘번역된 의미가 수신자-번역자의 개인적 경험과 함수관계에 있기에 번역에서 객관성의 추구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나아가 저자의 의도를 되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 말한다.

10) 라드미랄(1986: 33): “오늘날, 일주 2천 년도 더 지난 지금 고개를 쳐드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문제다.”

구분이 되지 않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상태인 “실용적 상태”에 대해서도 라드미랄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둘째 상태인 “논쟁적 상태”, 그리고 두 상태의 중간 단계인 “에큐메니컬 전환”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그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의 번역학에서는 “직역이나 의역이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번역(학) 논쟁이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때로는 거의 “폭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들이 주저없이 구사되기도 한다.¹¹⁾ 바로 포스와 포스(2003)가 말하는 “초대의 수사”(invitational rhetoric) 같은 “파동적 수사”의 적극적 사용이 번역담론들에서도 크게 필요한 이유이다. 라드미랄은 자신의 생산적 번역론과 다니엘 질(Daniel Gile)의 번역론이 서로 상보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용적 상태”의 한 예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탐구는 번역의 보다 나은 실천을 위해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²⁾

번역론에서 말하는 “이론”(또는 “론”)은 엄밀과학의 이론과 다르다. 이 차이를 강조하는 라드미랄은 번역학이 번역이라는 대상의 복잡다기성으로 인해 “탈공리화”(déaxiomatiser)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상반되는 번역 현실로 인해 번역학에서는 서로 대립된 여러 이론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¹³⁾ 이러한 공존으로 인해 “성찰적 담론”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번역론 논의에서는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결정을 하려면,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수사(학)적 논증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뒤리외(Durieux 2006)가 “경계의 분야”(discipline limitrophe)라고 말하는 번역학에서는 사실 인문학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진리나 진리성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번역학의 인식론도 엄밀학문이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완화된 기준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들에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이나 “그럴법함(plausibilité)”, 혹은 타당성이나 적절성이 논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기준들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니, 이

11) 정혜용(2012: 89-90, 258) 참고.

12) 다양한 예들이 있지만, 이스라엘(Israël)의 문학 해석번역론을 재해석 확장한 전성기(2009a)의 탐구번역론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라드미랄(2009: 15) 참고.

“정도”를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탐구는 꼭 필요하다. 프뢰리제르(Froeliger 2005:1)는 번역학을 “불순한 분야”라 말한다. 다른 분야들과 혼합되면서 이들로 부터 끊임없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역의 이론 구축, 즉 번역으로부터 번역학으로의 도약은 “위태롭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뎀(2010c)이 말하는 “위험 관리”를 번역 뿐 아니라 번역론에서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발라르(Ballard 2007)가 말하는 번역학에서의 “인식론적 균형 회복”도 인문학 번역론의 주요 고려사항의 하나이다. 그는 번역학이 언어학으로부터의 종속적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회피한 나머지 고려 자체가 등한시되었던 번역론에서의 언어와 언어의 차이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발라르(2006)에 의하면, 번역학은 “관찰의 학문”이고, 그 관찰의 일차적 대상은 번역 텍스트의 재료인 언어이다. 번역이 언어들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담론, 텍스트에 대한 작업이라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자주 목격하듯이– 텍스트의 언어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하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번역학에서 언어학을 배제하려다 번역에서 관찰의 일차적 대상인 텍스트의 언어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 발라르의 생각이다. 우리 오역 논쟁들의 제일 큰 부분도 실은 이 언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텍스트문법이라 할 수 있는 “번역문법”의 활발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⁴⁾ 신기윤학파로 불리는 슈발리에, 로네, 몰로(Chevalier, Launay, Molho 1986: 96)는 “언어에서 표층보다 더 심층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다. 표층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은 언어의 심층적 모습의 “번역” 자체라는 것이다.

발라르(2006: 182-83)는 번역론이 다양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번역론들이 각기 나름대로 우리의 번역 지식에 무언가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통로를 통해 보도록 하는 순간 일그러진 프리즘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자주 빠지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가 동일하지 않다면 동일한 이론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라르는 번역의 성찰에서 관점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론가의 주관성, 이론화

14) 전성기(2002)는 번역문법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 근본 토양, 성찰에 사용된 개념적 도구들을 든다(2007: 21). 사실 인간의 작품 중 어찌면 가장 복잡한 것이라 할 “언어-문화”의 번역을 한 두가지 이론으로 모두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사회언어적 기준들과 결부되어 있기도 한 번역자의 작업이 번역학의 중심 연구 대상이라는 발라르의 생각은 번역자의 “번역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탐구번역의 정신과도 맥이 통한다.¹⁵⁾

3. 번역론의 학문성

번역론의 인식론은 번역학의 메타담론의 하나로서, 라드미랄이 어느 글에선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학문이라고 한 번역학의 “됨됨이”에 대해 묻고 따지고 성찰하는 담론이다.¹⁶⁾ 위에 번역(학) 인식론과 관련하여 언급된 사항들은 거의 모두 번역(학)의 ‘됨됨이’에 속하는, 또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람됨”, “사람다움”에 대한 탐구가 되어야 하리라는 인문학의 성격과도 잘 어울린다. 번역론의 메타담론에서는 진리성이나 과학성 탐구 전통에서 비롯된 인식론을 살필 필요도 있지만,¹⁷⁾ 인간의 가치, 무늬, 향기를 중요시하는 인문학¹⁸⁾의 한 분야로서의 번역(학)의 학문적 성격, 그 “됨됨이”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학문성”은 이런 경우 “과학성”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기상(2003: 250-51)에 의하면, 라틴어 “scientia”, 같은 철자가 쓰이는

-
- 15) 사야, 시메온(Sayah & Simeon 2007: 82): “미묘하면서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번역 행위는 머리와 마음이 열려 있음을 전제로 한다.”
- 16) 인문학번역은 바이위(Baillu 2004: 54)의 표현을 빌리면 “매우 인간적인 실천(une pratique éminemment humaine)이다.”
- 17) 강영안(1995: 17)은 한치진이 그의 『철학개론』(1936)에서 인식론을 ‘현대철학의 중심문제로서 지식의 기원과 표준을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견지에서 논급한다’고 기술하였음을 보여준다.
- 18) 고영섭(2008): “오늘 우리 인문학의 위기는 어학, 문학, 역사, 철학(윤리) 등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의 뿌리로서의 ‘인문학’이 그 이름과 달리 그 글을 쓴 사람의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향기’, ‘인간의 무늬’, ‘인간의 가치’ 등을 탐색시킴으로써 스스로 소의를 자초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영어와 불어의 “science”, 독어 “Wissenschaft”에 해당하는 “학문”은 말 그대로 “배워 물음[묻고 배우]”이다. 학문의 이러한 이해는 학문을 “묻기”(questionnement) 과정으로, 이를 탐구하는 제문론(problématologie)을 “질문의 철학”으로 규정하는 미셸 메이에르(Michel Meyer)의 관점과도 깊이 통하는 것이다.

메타담론이 우리 번역학계와 인문학계에 드문 것은 위기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열악한 우리 인문학 번역문화와 무관하지 않다.¹⁹⁾ 위기의 큰 부분은 일단 부실하고 허술한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그런 식의 번역을 낳게 한 정신의 문제일 것이다. 바로 인문학번역에서 인문정신의 제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위기”란 말은 인문학의 폄하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문학의 생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안재원(2007)에 의하면, 인문학은 생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삶의 한복판에서 사회적 위기와 함께 태어난 학문”이다. 인문학 자체를 “위기의 학문”으로 규정하는 이태수, 장경렬(2003: 7)도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없다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위기의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며, 삶 자체가 그러하듯이 인문학도 “미완의 기획”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2003: 15). 하지만 인문학이 학문적 탐구이고 연구이고자 하는 이상 미완의 기획일지라도 그 학문성에 대한 성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인문학번역을 포괄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번역인문학도 학문성 제고를 위한 메타적 성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기상(2003: 252)에 의하면, “배워 묻기[묻고 배우기]”는 “동양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다. 이때 “배운다”는 의미 안에는, 배워서 아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동양 전통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천으로서의 수양, 즉 몸살이에서 자신의 몸을 닦아 맘살이, 열살이까지 이어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19) 이항(2011: 200): “『번역학연구』에 지난 10년(2000-2009)간 실린 총 244편의 논문을 일차적으로 분류하여, 소위 ‘메타담론’에 속하는 논문들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 번역의 역사, 번역학의 정의, 혹은 연구방법론 등 메타담론적 성격의 연구물은 지난 10여년을 통틀어 대략 19편 미만으로, 사실 진정한 메타담론이 개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자기 수양의 길”이라는 것이다.²⁰ 임재해(1999: 31)도 “기존 지식을 사실이라 믿고 익히는 일은 학문이 아니라 학습”이라며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학문은 학습과 달리 기존 지식에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며 따져보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삶과 삶을 둘로 보지 않는 것은 두 저자가 동일하다. 이기상(2003: 251)은 “삶이 필요한 것은 삶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임재해(1999: 23)는 “인문학문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학문”이라 말한다. 탐구번역론과 이를 포함하는 번역인문학은 이와 같은 삶과 삶이 융합된 혹은 회통하는 학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문에 대한 임재해의 생각은, 체계적은 아니라 해도, 메이에르의 <제문론>과 많이 닮아 있다. 제문론이 답보다 물음을 더 중요시하듯이, 임재해(1999: 29-31)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해답보다 의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야말로 학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법”,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학문에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문을 ‘물어서 배운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임재해(1999: 29)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이미 확실히 알고 있다고 여기는 상식에 관해서도 새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학문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문학번역을 넓고 깊게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번역인문학의

20) 이기상(2003: 252-53): “인간만이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다. 물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격적인 힘은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데 있다. 물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물음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물고 배운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신이 서 있는 틀, 전통, 역사 등에 물음을 던져 그 타당성을 일단 유보시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버리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효용성 등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삶 가운데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이 점이 우리 전통 학문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서양철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의미의 차원을 살린다면 서양 학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서 우리의 삶을 위한 삶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태도이기도 하다. 로비타이유(Robitaille 2005: 208)에게 “진정으로 대화에 열린 인간 공동체”는 “하나의 답이나 공유된 답들의 종합에서가 아니라 ‘공유된 질문’에서 사회적 윤리적 기반을 발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번역인문학이 인문학연구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학문적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기상(2003: 255-56)은 “‘묻고 배움’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가슴에 품고 계속 돌리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서 삶 속에 풀어놓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배운 것”이 “삶 가운데 실행되어 삶에 되먹임된다”는 것이다. “삶의 문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삶을 낳고, 이 삶이 다시 삶에 되먹임되어 이러한 되풀이 속에 배움으로 굳어져서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수준이 되면 그 배움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결로 새겨진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인문학번역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이 삶 속에 결로 새겨지기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인문학번역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는 인문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지나친 요구나 기대라고 말하기 어렵다. 인문학번역이 인문학연구의 중요한 기본적인 작업임을 이해하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연구자들이 깊이 새겨들을 말이다. 위와 같은 “묻고 배움”과 맥을 같이 하는 이완재(1998)가 말하는 선인들의 공부 방법, “꼭 잠겨 즐겁게 탐색함”, “오래 쌓아 점차 익어가게 함”을 뜻하는 “침잠완색(沈潛玩索) 적구점숙(積久漸熟)”은 인문적 사유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문학번역의 방법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인문학번역에는 매우 미묘하면서 비체계적인 면도 다분히 있는 만큼,²¹⁾ 엄밀성을 부단히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연과학의 과학성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방법론의 이름으로 탐구의 대상 자체가 제외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 라드미랄이 번역학 담론을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 담론이기보다 실천을 위한 실천학의 담론으로 본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번역의 ‘실천학적’ 담론도 학문적 담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유일

21) 프렐리제르(2010: 18)는 번역을 ‘매우 미묘한 비체계적인 예술이며,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법’이라 묘사한다.

한 선택을 위한 방법이 논리수학적 방법이라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번역 학같은 경우에는 수사학적 논증에 의거한 “주관상호성”의 논증적 추구를 통해 선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타당성은 번역 시 고려된 사항들의 다른 해석이나 새로운 요소(들)의 고려 등을 통해 다시 문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인문학번역에서는 번역자가 중심에 놓이게 되기에,²²⁾ 인문학 번역론에서는 자연과학을 연상케 하는 과학성보다 이를 아우르며 동양의 학문적 전통의 맥을 잇기도 하는 학문성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텍스트 유형과 번역

인문학번역은 누가, 왜, 누구를 위해 번역을 하는가 등에 따라 “어떻게”도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가 학문적 연구를 위한 번역과 일반 독자들을 위한 번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다. 번역의 목적에 따라서도 번역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계몽을 위한 번역과 작품성의 공유와 소통을 위한 번역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런데 특히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대상 텍스트의 성격이다. 번역과 관련된 우리에게 친숙한 구분은 문학텍스트와 비문학텍스트의 구분 또는 문학텍스트와 실용텍스트 혹은 비문학텍스트의 구분이나, 최근까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라이스(Reiss)의 텍스트 유형 구분이다. 라이스는 뵐러(Bühler)의 언어의 세 기능인 서술기능, 표현기능, 호소기능에 따라 정보 텍스트, 표현 텍스트, 호소 텍스트를 구분하며, 번역 방법도 이 텍스트 유형에 적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그러나 라드미랄(2006b: xi)은 이들을 폐쇄적 요소가 아니라 연속체 속에서의 우세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라 지적한다. 라드미랄(1981)은 문학번역, 기술번역외에 이 둘과 동시에 관계를 가지는 철학번역을 구분하는 것이 독특하다. 도식상으로 보면 철학번역은 역삼각형의 아래 꼭짓점에 자리한다.

이난희(1995: 449)는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 구분에서 언어의 기능이 세 가

22) 프렐리제르(2005)는 직업번역(전문번역)에서도 번역자가 번역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3) 이난희(1995: 444-47) 참고.

지로 국한된 것, 텍스트의 다기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 텍스트의 기능을 언어 외적인 종합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텍스트 내적인 요소를 통해 설명을 시도한 것, 번역자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문제의 구분을 비판한다. 한편, 쉬톨제(Schlotze)의 ‘번역 범주’ 모델의 특징은 텍스트를 실용텍스트, 전문텍스트, 문학텍스트 등으로 구분하는 대신, 주제·의미·어휘·화용·문체라는 ‘번역 범주’를 설정하여 ‘모든 텍스트’에 적용한 것이다.²⁴⁾ 이는 “번역자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요소들의 해석과, 그 요소들 서로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번역 범주의 제공 문제와 등가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이난희 1995: 462). 하임, 티모프스키(Heim & Timowski 2006)도 인문학 텍스트가 과학이나 기술텍스트와도 다르고 문학텍스트와도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든다. 인문학 텍스트가 자연과학 텍스트의 일반성을 지향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점, 문학텍스트와 달리 인문학텍스트에서는 문체의 영향이 적다는 점이 언급된다. 전자에서 낱양스가 중요하다면, 후자에서는 명료성이 중요하다. 인문학담론에서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그 특성의 하나로 꼽힌다.

로버츠(Roberts 1995)는 들릴(Delisle), 뉴마크(Newmark) 등 여러 학자의 다양한 번역 유형을 검토한 후 크게 원텍스트 관점에서의 번역과 번역텍스트 관점에서의 번역으로 나누어 자신의 번역 유형을 자세히 제시한다. 큰 대목만 살펴보자. 우선, 원텍스트의 전반적 관점에서 그는 번역을 실용텍스트와 문학텍스트로 나누고, 특정 중심 텍스트에서는 정보텍스트 번역, 호소텍스트 번역, 표현텍스트 번역을 구분한다. 원텍스트의 내용과 어휘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서는 일반번역과 전문번역을 구분한다. 원텍스트가 포괄하는 전문화의 일반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sci-tech) 번역과 사회경제 번역이 구분된다. 원텍스트의 문체와 관련해서는 기술(description), 논증, 서술, 대화가 구분된다. 원텍스트 장르로서는 책, 논문, 교과서, 리포트, 편지, 소설, 에세, 시 등의 구분을 볼 수 있다. 번역의 일반 목적에 대해서는 직업적 번역과 비직업적 번역이 구분된다.

번역텍스트 산출에 쓰인 번역 방식에서는 “의미 번역”과 “소통 번역”이 구분된다. 전자가 저자 지향적, 원어 지향적이라면 후자는 보다 독자 지향적, 번

24) 이난희(1995: 454-59) 참고.

역어 지향적이다. 번역의 매개와 관련해서는 넓은 의미의 번역이 통역과 좁은 의미의 번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들이 완전히 서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구분들은 해당 분야 지식 분류 뿐 아니라 “번역 탐구의 기본적인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번역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을 연구를 위한 균질적 코퍼스 구축에도 이용할 수 있고, 번역 교육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각 유형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휘들이나 문장 유형들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사전 지식이 번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넓은 의미의 인문학은 다양한 텍스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위의 언급된 다양한 텍스트 유형, 그리고 그들에 쓰이는 언어적 수단들을 알아두는 것이 번역에 유용할 것이다.

텍스트의 유형 구분이 번역의 이해와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다. 텍스트와 유형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형의 구분은 대개의 경우는, 라드미랄이 지적하듯이, ‘우세 요소’의 구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작품성, 기술성, 실용성을 들 수 있다. 모든 문학작품이 작품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번역에서 작품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번역이 양적으로는 우세하지 않을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작품성의 번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로슈리츠(Rochlitz 2001)가 “성찰의 작품”이라 부르는 철학서들도 포함되는, ‘작품성’을 갖춘 텍스트들에서 이 작품성이 번역되지 못한다면 사실 품격있는 번역이나 이른바 “명역”이 되기 어렵다. 기술성은 용어 번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 방식 등과도 관련된다.

뒤리외(2006:103)는 문학적인 것 속에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문학번역과 기술번역의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인문학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실용성도 대중적 인문학서의 번역에서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인문학 텍스트는 작품성, 기술성, 실용성이 뒤섞여 나타나는 ‘혼합적 텍스트’이기 때문에²⁵⁾ 다양한 번역 방식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각 텍스트는 나름의 독특한 존재이다. 텍스

25) 뒤리외(2006: 103) 참고.

트의 유형을 아는 것이 번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텍스트도 똑같지는 않다. 인문학번역에서는 각 텍스트의 개성과 독특함을 파악하여 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작품”(oeuvre)의 번역에 필수적이다.

에코(Eco)의 텍스트 범주 구분도 보다 인문학 텍스트를 번역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에코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닫힌 텍스트”와 “열린 텍스트”로 구분한다.²⁶⁾ 매우 드문 극단적으로 닫히거나 열린 텍스트를 제외한다면, 텍스트의 닫힘과 열림은 상대적이다. 닫힘과 열림은 동일 축 위에서의 정도의 구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인문학이라 할 수 있는 문사철의 경우, 그 텍스트들은 대체로 열린 것들이나, 비교적 닫힌 경우들도 없지 않다. 번역과 관련하여 “닫힘”, “열림”이 중요한 것은 맥락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닫힌 텍스트는 맥락의 고려가 소극적이어도 별문제가 없으나, 열린 텍스트일수록 맥락 고려의 중요성이 커진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낱말 하나도 그 의미는 맥락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텍스트 맥락은 좁은 의미의 맥락에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맥락의 영향이 커질수록 번역의 어려움은 커지기 마련이고, 심지어 번역불가능성까지도 자주 거론되게 된다. 대개의 인문학 텍스트들은 열린 텍스트들이고, 따라서 맥락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²⁷⁾ 이런 점은 번역비평 시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상대적인 닫힘과 열림은 의미의 안정성/ 불안정성과 맞물려 있다. 인문학 소개서들과 같이 인문학 관련 텍스트들에도 의미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들도 있겠으나, 문학과 철학을 비롯한 대개의 인문학 텍스트들은 의미의 ‘불안정성’이 대체로 높다. 때로는 말라르메(Malarmé)의 시들이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 또는 일부 철학서들처럼 그 ‘불안정성’이 매우 큰 경우들도 드물지 않다. 양자물리학에 빗대어, 문학번역을 “텍스트 외부에 남아 텍스트를 불활성의 객관적 대상처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 사이의 파동을 재현하는 것”이라 말하는 데위스(Dehusses 1997)의 말이 타당하다면, 그러한 문학번역에 준하는 인문학번역은 상당히 ‘불안정

26) 이 구분의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상진(2003)을 참고할 것.

27) 이때 ‘맥락’을 작은 맥락(co-texte), 큰 맥락(con-texte)을 모두 아우른다.

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의미의 불안정성은 실용적 텍스트들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감수성의 상호작용이 훨씬 큰 인문학 텍스트들에서 크게 증가되고, 그에 따라 번역의 불확실성 또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²⁸⁾ 이스라엘(2006: 15)은 독자의 “비판 정신의 투입”을 의미의 불안정성의 한 원인으로 보는데, 이러한 비판 정신은 인문 정신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탐구번역은 이 비판 정신을 불안정한 의미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 그리고 그 타당성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인문학 번역론

인문학번역을 논하면서 일정한 길이를 가진 글들은 많지 않다. 그 중 하나인 로슈리츠의 번역론은 인문학의 이론적 텍스트들의 번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로슈리츠는 인문학번역을, ‘시적 번역’과 달리, “원전을 읽는 것이 면제되는” 번역으로 본다(2001: 66).²⁹⁾ 그는 일부 이론가들이 철학과 인문학을 포함하는 일반 번역을 원어의 이타성에 대한 “열림의 연습”으로 간주한다. 이는 시적 번역에서 발전된 원리들을 인문학번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헤겔이나 하이데거의 텍스트 등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인문학번역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는 본다. 인문학번역에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읽힘새(lisibilité)와 이해됨(intelligibilité)이다. 번역에서 일정 정도의 정보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핵심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해와 표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번역의 목표로 삼는다. 인문학 번역자가 번역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과 더불어 일반교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로슈리츠는 “신뢰성”(le caractère fiable)을 인문학번역의 주요 덕목으로 본다. 그는 인문학 번역자가 무엇보다 글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한다.³⁰⁾ 우리 인문학 번역자들이 크게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번역글쓰기도 엄연한 글쓰기이다. 글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거나 되다 만 번역이다.

28) 불량제(Boulanger 2006) 참고.

29) 라드미랄(1981: 25)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한다.

30) 로슈리츠(2001: 66-9) 참고.

로슈리츠는 인문학번역에서 문화의 차이에 주목한다. 독일어 텍스트를 불어로 번역할 때, “독어는 불어보다 보다 총합적”이기에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결과가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번역의 경우, 불역은 원전을 분석하고 명시화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역된 문장이 원문의 두 배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일련의 문장들을 번역할 때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시적인 수사적 표현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로슈리츠는 원문화에 깊숙이 뿌리박힌 하나의 사유가 타문화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고, 자국에서보다 더 환영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번역자가 사유를 변질시킬 수는 없으나, 그 울림이 타언어문화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고 그는 말한다. 책 제목도 언어문화와 사유의 차이로 인해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문학번역에서 “이국적 매력”이 될 수 있는 “이국성”의 번역도 철학서 같은 “성찰의 작품”에서는 원저자가 번역문화에서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함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로슈리츠의 입장이다³¹⁾.

퐁샤랄(Poncharal)은 «Social Science Translation Project»(약어로 SSTP)의 참여자였고, 그 결과로 출간된, 전 세계의 인문사회과학 관련 출판자, 번역자, 연구자들 등을 대상으로 한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Social Science Texts»의 불어본 번역자이다.³²⁾ 퐁샤랄은 이 텍스트 제목의 “Social Science”를 “sciences humaines”로 옮기고 있는데, 이 명칭들이 가리키는 원문과 번역문에 제시된 분야들의 면면을 보면,³³⁾ 우리말로는 인문사회과학 혹은 광의의 인문학

31) 로슈리츠(2001: 73-7) 참고.

32) SSTP는 Ford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ACLS)의 주관 하에 2004-2005년 사이에 진행되어 2006년에 완료된 국제적 프로젝트이다. 그 결과물인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Social Science Texts*는 30쪽 분량의 영어 소책자로 불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월남어로 번역되었다.

33) ‘Social Science Texts’에 포함되는 것들로 인류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학, 경제학, 젠더연구, 지리학, 역사학, 국제관계, 법학, 정치학, 심리학, 공중보건, 사회학 그리고 관련분야들이 우선 언급되어 있다. 문제의 텍스트들에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 문서, 신문이나 여타 미디어 자료들을 비롯하여, 철학, 역사, 예술사, 음악학, 문학비평 등의 인문학 연구들도 포함된다.

쯤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풍샤탈은 인문학번역에서 완전히 일반적인 의미의 번역을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텍스트 유형마다, 나아가 경우마다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미권에서는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 주로 문학텍스트, 픽션, 시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번역에 대한 성찰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성경번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서로 다른 텍스트 유형을 명료하게 경계짓는 것도 수월치 않다고 그는 토로한다(풍샤탈 2007: 102).

인문학 텍스트의 번역을 흔히 개념 번역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풍샤탈은 말한다. 거의 읽을 수 없는 번역,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번역, 즉 실패한 번역은 진정한 의미의 텍스트가 못되는 번역이다. 그러한 텍스트는 독자들과의 소통에 실패한 텍스트이다. 인문학 텍스트에서는 개념들 뿐 아니라 이 개념들이 텍스트 구성에서 구축되는 방식, 언어 내적 논리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논증이 구성되는 방식들의 고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풍샤탈의 생각이다. 논증, 담화적 일관성이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직역상으로는 그럭저럭 맞는 번역이라 할지라도 번역어로서 읽기에는 부적합한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풍샤탈은 인문학서나 철학서를 번역할 때, 특히 잘 읽히지 않는 텍스트의 경우, 번역자가 이를 진정으로 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적 해석을 해야 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구현할 최선의 방식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샤탈은 인문학의 경우, 번역은 좋은 의미에서 원전의 “비판적 읽기”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동일한 “대응물”을 만들어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를 텍스트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풍샤탈 2007: 103).

언어들 사이의 차이로 인한 간극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은 바르바라 카생(Barbara Cassin)이 말하는 이른바 ‘번역불가능어(les intraduisibles)’ 문제로 이어진다. 이들은 주어진 하나의 언어문화에 너무도 깊이 뿌리박고 있어 번역에 저항하는 표현들이다.³⁵⁾ 풍샤탈(2007: 104)은 “anticlerical laws”를 “lois anticléricales”이라고 과연 옮겨도 좋은가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데,

34) 이 ‘체화’ 혹은 ‘자기것 만들기’(appropriation)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35) 카생(2007) 참고.

언어·문화·법·행정·관습 등의 차이로 여러 문제가 야기됨을 알 수 있다. 그는 “번역불가능어”나 개념적 “헛짜(faux-amis)”의 경우에는 전달에 실패 위험이 따르기에 번역자가 그 문제의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노트나 서문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번역자는 이러한 경우 “지적 토론”의 행위자라고 풍샤랄은 말하는데, 그러한 “지적 토론”은 비단 저자가 지적하는 경우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소 과장해 말하자면, 한 텍스트의 많은 낱말들이 그런 ‘지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의 차이가 관련된다면 특히 그러할 것이다.

풍샤랄(2007: 105)에 의하면, 번역에서의 ‘읽기’는 독자-번역자의 능력이 그 가정된 일관성의 재구축에 부단히 시련당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원텍스트의 품질, 그 내용과 논증의 일관성이 어떠한지, 그 일관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번역작업은 모든 여타 비판적 작업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독자가 전문가들이고 관련 분야들이 첨단인 것일수록, 번역자도 전문가일 필요가 있다고 풍샤랄은 말한다. 완벽한 전달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이국적 개념들을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언어에 끌어들이야 하는지 혹은 끌어들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번역자에게 달려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또한 번역자는 번역이 텍스트의 복제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아닌 독자들에게 텍스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제적 문화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조언한다. 번역은 단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풍샤랄의 생각이다. 하임, 티모프스키(2006)의 『인문학 텍스트 번역 가이드』는 인문학번역에 대한 ‘옹호와 선양’이다. 이 ‘옹호와 선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국어로 글쓰기’라고 풍샤랄(2007: 103)은 크게 강조한다. 번역을 ‘재표현’이나 ‘다시쓰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모국어로 본격적인 ‘번역글쓰기’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임, 티모프스키(2006)는 『인문학 텍스트 번역 가이드』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한다. 그 하나는 번역자에게 명료성과 문체적 특성 사이에서 타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어의 문체적 한계를 한껏 늘이되 번역텍스트가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번역텍스트가 처음부터 번역어로 쓰인 것처럼 옹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도록, 수궁할 만한 텍스트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들이 인문학번역의 장애물로 꼽는 것들로는 원텍스트를 고치는 것,

문체적 특성을 지우는 것, 논증 전략을 바꾸는 것, 헛짜, 개념적 헛짜, 길이가 늘어나는 경향, 용어들에 일관성이 없는 것, 한 시기의 특정 언어, 전문용어 사용 등이다. 이들은 주(註)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말하면서 그 생략 가능성도 언급한다. 이들은 타고난 번역가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원어와 번역어를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번역의 전문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술텍스트는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은 덧붙인다.

이밖에도 여러 자료들에서 인문학번역에 대한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몇 경우만 보자. 빅케, 푸아쉬(Wicke & Fouache 2006)는 인문학번역에 대한 학술대회 논문집³⁶⁾ 서문에서 앞의 두 연구자와는 달리, 인문학번역을 문학번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문학번역도 문학번역과 마찬가지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메시지 전달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문학 텍스트가 문학 텍스트처럼 ‘작품’ 텍스트로 간주한다. 이들이 제시한 예는 프로이트(Freud)와 벤담(Bentham)의 텍스트 번역이다. 프라이스(Price 2008)는 사회과학 번역에 대한 글을 썼지만, 그가 지적한 내용들은 광의의 인문학번역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된다. 그는 사회과학 텍스트 번역이 단지 개념들의 번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그는 우선 사회과학에서 개념들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2008: 350). 그리고 그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것은 번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 제고되는 것이라 말한다. “괜찮은 이상주의자는 파도를 헤쳐나가지만, 실패한 이상주의자는 보편 개념들의 두터운 얼음을 믿는다”(2008: 355)는 비유로 그는 개념 번역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³⁷⁾

우리 학계에서도 인문학번역에 대한 언급이 종종 눈에 띈다. 정준영(2001:

36) 프랑스 루앙 대학에서 2006년 3월에 <인문학번역: 방법과 쟁점들>(«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méthodes et enjeux»)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잡지 *La Tribune Internationale des Langues Vivantes*, 41호에 1부와 2부로 나뉘어 출간되었다.

37) 프라이스(2008: 354)는 사회과학의 번역도 사람들의 어떻게 살고 일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가 하는 보다 인간적인 이해, 이를 통한 보다 깊은 소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도 시사한다.

57)은 우리가 서양 고전어를 번역할 때 가능한 길은 의역의 길밖에 없는데, 의역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직역에 가까운 의역’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의역”으로, 번역사에서 후자 같은 번역은 “두 전통(언어) 간에 상당한 이해의 토대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직역에 가까운 의역”은 교육적 측면이 고려된 번역 방식이다. 그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고, “이를 위해서는 번역문의 가독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또한 주석의 작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1: 37).³⁸⁾ 한편, 이기상(2011)은 소통을 인문학번역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는 하이데거 번역을 통해, 일본어 용어나 표현의 거의 무책임한 차용으로 인한 번역 소통상의 폐해를 절감한다. 특히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상어들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일상어와는 거의 무관하게 번역된 것을 그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도 그에겐 소통이 인문학번역의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번역가 표정훈은 『공리의 글』에서 『중용』을 인용하며 “성실함이야말로 번역의 처음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좋은 번역이란 없다”고 단언하는데, 탐구번역론은 이에 크게 공감한다. 변광배(2010)는 사르트르(Sartre)의 *Le Mur*의 우리말 번역들을 검토하며, 철학번역에서 “철학적 사유”의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유의 번역은 보다 넓게는 인문학번역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홍성욱(2000: 230)은 인문학적 사유를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또 다른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양한 설명의 차이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를 결합시켜 보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던지는 나선형의 과정의 끊임없는 연속”이라 설명한다. 사실 탐구번역의 과정은 그러한 사유의 과정이고, 또한 그러한 사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소광희(2011: 231)는 “번역은 단순히 말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말을 옮기면서 동시에 우리말을 세련되게 하고 새로운 창조적 사유를 계발하는 것”이라 말한다. “여기에서 새 문명과 문화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아라비아의 철학과 과학이 그랬고, 중세의 스콜라철학과 근대를 개창한 인문주의 운동이 그랬으며, 르네상스가 그랬다”는 것이다. “불교경전의 한역도 그것을 통해 한자문화권의 나라마

38) 전성기(2008: 142-43)를 볼 것.

다 대장경을 발간하면서 각기 자기에게 알맞은 새로운 사상을 담아내서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개발”했고, “일본의 서양문헌 번역 또한 자기네의 고유한 예술 감각과 탐구정신을 거기에 얹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문학과 과학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왜 우리라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겠는가. 우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번역인문학은 인문학번역이 창조적인 인문적 사유를 통해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문학 번역론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인문학 번역론으로 활용 가능한 번역론들이나 이와 관련된 주장들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베르만(Berman)이나 메쇼닉(Meschonnic) 등의 문학번역 관련 저술들은 중요한 참고 자료들이다.³⁹⁾ 번역학을 ‘관찰의 학문’이라면서 텍스트의 언어자료부터 섬세하게 살필 것을 주문하는 발라르의 글들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발라르는 번역자들의 작업 분석이 번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말하는데,⁴⁰⁾ 이는 번역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며 자신의 번역을 의식적으로 탐구하는 탐구번역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과연 그 수많은 명시적 묵시적 인문학 번역론들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을까? 뫼(2010a:4)은 서로 다른 이론들을 다소간 알아두는 것은 정형화된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번역학에서 패러다임의 복수성을 기꺼이 인정한다. 이는 무엇보다 그가 하나의 번역론을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번역론의 차이는 제기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이 점은 저자의 글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메이에르의 <제문론>의 관점과 크게 일치한다. 서구의 번역론들은 서구의 번역 문제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가 과거의 번역론들을 대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 이론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나 하는 것이다.⁴¹⁾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가 먼저

39) 조재룡(2003, 2007), 정혜용(2006, 2012), 전성기(2009a, 2009b), Jon(2010) 참고.

40) 발라르(2008:220) 참고.

41) 정혜용(2012)은 베르만의 “문자 번역”이 프랑스 특유의 ‘자민족 중심주의’ 번역에 대한 냉엄한 자기비판에서 생겨난 것으로 분석한다.

인 것이다. 이는 우리 인문학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름은 이러한 문답의 관련성을 결정론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어디서라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문제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문제가 유사하다면 물론 기존의 답들을 거의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필름은 많은 경우 하나의 번역 개념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에 쓰이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번역론들에서 문답관계가 결정론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의 답이 서로 다른 여러 물음들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의 문제도 언어, 문화, 역사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다르기에 문제도 똑같기는 어렵고, 따라서 답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한 경우 문제는 여러 단서들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⁴³⁾

서구의 번역론들도 이렇게 제문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인문학 번역론, 그리고 나아가 인문학 번역과 명시적 묵시적으로 관련된, 혹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 수많은 단편적인 지적들도 인문학번역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문학번역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은 인문학텍스트들의 ‘작품성’ 번역에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근자에 문학번역 논의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베르만의 “문자 번역”이나 메쇼닉의 “리듬 번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재창조 번역”⁴⁴⁾ 등은 인문학텍스트의 “작품성” 번역에 좋은 성찰의 자료들이 될 수 있다. 근자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철학번역과 관련된 글들도 “성찰의 작품”들의 번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철학번역과 관련해서는 라드미랄과 리콤프(Paul Ricoeur)가 근자에 자주 언급된다.⁴⁵⁾ 이러한 문학번역이나 철학번역에 관한 글들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 쓰인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 쓰임

42) 필름(2010b:1) 참고.

43) 필름(2010b) 참고.

44) 이스라엘(2001)은 문학번역의 주요 세 경향으로 ‘복제-번역’, ‘번안-번역’, ‘재창조-번역’, 이 세 가지를 든다.

45) 라드미랄(2004, 2005, 2007), 리콤프(2006) 참고.

새가 보다 커질 것이다.

라드미랄(1981)은 철학번역이 번역 일반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번역에서도 번역자는 어휘 선택을 하기 전에—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끊임없이 최소의 또는 일시적 해석들을 해야 하는데, 철학번역은 어려움, 문화, 성찰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번역은 번역자의 “기본 교육”(formation fondamentale)의 역할에 적합하며, 이는 문학번역과 그 정도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번역 어휘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텍스트의 ‘동위성(isotopic)의 전반적 해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철학번역은 읽힘새가 좋아야 하지만 정확성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그는 철학번역자는 원칙적으로 번역에 대한 자신의 선택들을 논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⁴⁶⁾ 이러한 철학번역은 그 내용이 탐구번역과 유사성이 상당히 크다. 라드미랄(2004: 63)은 철학번역은 “텍스트들에 대한 철학적 작업”이라 말하는데, 인문학의 탐구번역은 번역 자체가 “인문(학)적 작업”이 되고자 한다. 라드미랄의 철학번역에는 인문학 번역론 탐구에 도움되는 요소들이 적잖이 있다.⁴⁷⁾

6. 탐구번역과 우리말로 학문하기

탐구번역은 “탐구로서의 번역”의 줄임말로, 인문학번역을 인문적인 작업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인문학 번역 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인문학번역이라는 실천을 돕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의 메타적 성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탐구번역론>은 물론 인문학번역이 아닌 “평상번역”에도 쓰일 수 있지만, 주로 넓은 의미의 인문학번역에서 그 쓰임새가 크다. 탐구번역의 탐구는 약하고 가벼운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학문적 연구번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탐구번역은 크게 1단계의 [읽기 ⇄ 해석]과 2단계의 [번역비평 ⇄ 번역글쓰기]로 구성된다. 각 단계 내의 구성요소 사이에도 상호작

46) 라드미랄(1981: 23-32) 참고.

47) 라드미랄(2004, 2005, 2007, 2009, 2010) 참고.

용이 부단히 일어나야 하지만,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은 부단히 일어나야 한다. 1단계는 다시 [분석적 읽기-해석 ⇄ 전일적 읽기-해석]으로 세분될 수 있다. ‘종합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일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텍스트에서 “부분적 의미들의 합이 전체의 의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의 세포 단위들의 이해의 합이 몸의 생명 차원의 이해와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탐구번역은 발라르(2004)가 말하는 [해석-바꿔쓰기-조정]의 번역과정과 번역자에게 필요한 능력 세 가지, 즉 해석 능력, 바꿔쓰기 능력, 다시쓰기 능력이 포함한다. 이 능력들은 모두 인문(학)적 사유의 구체적 실천에 필요한 것들이다.

탐구번역의 각 과정과 과정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인문학번역을 위해, 그리고 넓은 의미의 인문학번역의 인문(학)적인 체계적 연구를 지향하는 번역인문학을 위해 보다 깊은 탐구와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번역글쓰기는 근자에 인문학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말로 학문하기>와 관련지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학문(學問)은 사전적으로는 지식 혹은 어떤 분야를 배워서 익힌다는 뜻이고, 글자 그대로는 “배우며 묻는다” 혹은 “물어서 배운다”는 의미이다(임재해 1999: 23). 이러한 물음과 배움은 인문학이란 학문을 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는 데에도 쓰여야 한다는 것이 탐구번역론의 입장이다. 인문학번역을 탐구번역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문학번역을 인문정신으로 인문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 물론 그 정도나 심도의 차이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번역을 통한 소통의 시도가 단지 이른바 메시지의 전달-수용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언어문화 간에, 그리고 그러한 언어문화를 향유하는 인간들 사이에 깊은 교감과 일치에 이르는 것이다. 탐구번역은 이러한 교감과 일치를 위한 것이다. 탐구번역자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크게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임홍배(2004: 334)는 “작품 하나하나의 번역에 임하는 자세와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가 중국에는 삶의 이치와 닿아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문학 번역자들이 음미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탐구번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말들은 우리 인문학 관련 자료들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유재원(2002: 67)은 “한 낱말 한 낱말을 이렇게 조심스레 신경을 쓰며 번역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나, “한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학자가 남들에게 베풀어야 할 본분”이라 말한다. 그는 이러한 “정성 어린 번역”이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과정을 게을리 했기에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의 학문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⁴⁸⁾ 탐구번역의 대상이 꼭 대단한 학술적인 개념이나 사상만은 결코 아니다. 평시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상적 표현 하나, 대단치 않아 보이는 문법적 표현 하나도 탐구번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오스이론에서 말하는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북경에서의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 하나가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비유는⁴⁹⁾ 정도는 약하더라도 인문학 텍스트들의 번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바로 탐구번역에서 분석적 사고를 넘어서는 전일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번역인문학의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다. 인문학번역의 결과가 우리의 인문학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출판이 되었어도 추천받지 못하는 번역본 처지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대부분의 인문학 번역텍스트의 경우라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백종현(2002: 50)은 “글을 이루는 대부분의 말이 한국어일지라도, 외국에서 수입한 중심개념들이 우리말로 이해되고 표현되지 않은 채 쓰인다거나, 우리말 어감과는 다른 일본식 한자어로 대치되어 있는 글은 ‘우리글’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한다. “우리말로 학문한다는 것은 외국학문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문젯거리를 우리의 자연언어에 녹아 있는 우리들의 오랜 삶의 체험, 사고구조, 생각과 느낌의 표현방식으로 들춰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학문한다는 것은 학문 탐구의 도정과 결실을 대중들과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학문하기”에 대한 생각들도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말”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상당히

48) 유재원(2002: 69): “공부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내놓을 가장 좋은 것은 전공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유용한 지식과 지혜이다. 우리보다 공부를 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써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지식을 나누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학자가 된다. (...)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을 쉬운 우리말로 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결국 조상과 이웃, 그리고 후손에 대한 사람과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전공에 대한 사랑이며 긍지인 것이다.”

49) 데위스(1997) 참고.

다르다. 그러나 이것도 학문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유의할 것은 그러한 경우, “나”를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설득의 논증”보다는 “우리”, 보다 더 큰 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향하는 “탐구의 논증”을 보다 널리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7. 맺음말

어느 분야이건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다 보면 메타 차원의 담론, 즉 인식론적 담론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인문학 번역론 자체는 아직 크게 성숙되지 못했다 해도, 관련된 번역학 지식들은 이미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보다 나은 인문학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들을 인문학 번역자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인문학 번역자가 모두 높은 정도의 번역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문학 번역론이나 번역인문학에 보다 관심이 큰 연구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인문학 번역자들도 탐구번역을 하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부분적일지라도 번역담론과 그 메타담론들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위기와 열악한 인문번역문화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제시되는 번역인문학은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지만 하나의 부분적 답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문학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는 읽기와 쓰기가 인문학번역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탐구번역에서,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번역인문학에서도 핵심 문제라는 점에 그 문제제기의 인문(학)적 중요성이 있다. 더구나 탐구번역에서의 읽기와 쓰기는 두 해당 언어문화의 것들을 비교 차원에서 살펴야 하는 이중적 과제이므로 훨씬 더 폭넓은 인문적 사유가 필요한 작업이다. 번역글쓰기도 이제는 단순한 “재표현”이 아닌 본격적인 글쓰기의 문제로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차원에서 성찰될 필요가 크다.

최재목(2004)은 그간 소홀이 여겨졌던 인문학에서의 “편집술”의 중요성을 말한다. “인문학의 창의성은 편집술에서 나온다”는 그는 퇴계의 탁월한 작품 「성학십도」도 창의적 발상에 의한 훌륭한 편집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인문학 번역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획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공

통의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인문학번역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더라도 문제의 공유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공유를 통해 서로 어긋나 보이는 답들의 상통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면, “번역은 오늘 우리의 모든 철학과 학문에 대한 ‘기초존재론’”을 구성한다.⁵⁰⁾ 이는 인문학번역에 대한 메타적 성찰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크게 시사하는 것이다. 번역인문학의 장래는 이러한 작업들의 진척 여부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 강대진 (2004) 『잔혹한 책읽기』, 서울: 작은이야기.
- 강영안 (1995)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형성 배경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 한국문헌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5: 15-50.
- 강정인, 안외순, 이숙인, 이용주 (2002)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번역 정책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01.
- 고명섭 (2008) 「번역출판의 질은 왜 개선되지 않는가」, 『기획회의』, 218, «번역출판» 창간호 32-40.
- 고영섭 (2008) 「이 땅에서 철학하기 -연기철학·아우르기·찬반론」, <http://pjj321.egloos.com/m/4073618>.
- 교수신문 엮음 (2006)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서울: 생각의나무.
- 교수신문 엮음 (2007)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생각의나무.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리콥르, 폴 지음, 윤성우, 이향 옮김 (2006)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 현실사. (Ricoeur, Paul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 박상진 (2003) 『에코 기호학 비판 -열림의 이론을 위하여』, 서울: 열린책들.
- 박진영 (2011) 『번역과 변안의 시대』, 서울: 소명출판.
- 변광배 (2010) ‘Poids philosophique dans la traduction du «Mur» de Sartre’.

50) 허경(2010: 458)에서 재인용.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10(34): 119-141.
- 소광희 (2011) 「번역과 문화창달」, 『철학과 현실』 2011(90): 226-233.
- 안재원 (2007)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탄생한 인문학」, 『경향신문』 2007. 1. 26.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파주: 창비.
- 유명우 (2000) 「새로운 인문학으로서의 번역학」, 『영미어문학』 59: 247-253.
- 윤성우, 이향 (2009) 「번역학은 설명의 과학인가? -체스터먼(Chesterman)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1(2): 111-129.
- 윤성우, 이향 (2011)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2011년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25.
- 이기상 (2003) 『다석과 함께 여는 우리말 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 이기상 (2011) 「번역의 기반으로서 일상언어와 말놀이: 하이데거의 언어철학이 제시하는 번역의 지침」, 《번역인문학의 나아갈 길》, 고려대 번역인문학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11.11.26., 21-45.
- 이난희 (1995) 「번역에 있어서 텍스트 유형 구분의 문제」, 『텍스트언어학』 3: 435- 465.
- 이완재 (1998) 「동양적인 학(學)의 성격」, 『겨레얼』 5: 2-39.
- 이태수, 장경렬 (2003) 「머리말 -인문학의 인식론적 특성에 관하여」, 『삶, 반성, 인문학 -인문학의 인식론적 구조』, 장희익 외, 태학사 5-20.
- 이향 (2011) 「번역학과 메타담론」, 『번역학연구』 12(1): 191-210.
- 임재해 (1999) 「인문학문의 위상과 인문학문을 공부하는 보람」, 『인문과학연구』 (안동대) 1: 5-62.
- 임홍배 (2000) 「올바른 번역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카프카,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번역 논란에 부쳐」, 『문학과 사회』 13(1): 320-334.
- 전성기 (2002) 『번역 의미 문법』,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전성기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전성기 (2009a) 「탐구번역론 -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번역학연구』 10(2):

133-157.

- 전성기 (2009b) 「문학 해석번역론 재해석」, 『불어불문학연구』 80: 475-499.
- 전성기 (2009c) 「과동적 수사학으로 -인문학에서의 학술적 소통을 위하여」, 『수사학』 11: 103-131.
- 정준영 (2001) 「인문학적 탐구로서 서양 고전 번역의 의미 -회랍 철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2(2): 37-63.
- 정혜용 (2006) 「베르만과 메쇼닉의 번역이론 이해를 위하여 -속담번역의 상징적 위치」, 『불어불문학연구』 66: 239-255.
- 정혜용 (2012) 『번역 논쟁』, 서울: 열린책들.
- 조재룡 (2003) 「메쇼닉(H. Meschonnic)에 있어서 ‘리듬’의 개념 -『리듬비평 Critique du rythme』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54(1): 631-661.
- 조재룡 (2007) 『앙리 메쇼닉과 현대비평』, 서울: 길.
- 조재룡 (2011) 『번역의 유령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재목 (2004) 「인문학, 편집술, 事的 글쓰기 혹은 緣起的 글쓰기」, 『인문연구』 (영남대) 45-46: 277-294.
- 표정훈 (?) 「비성무물(非誠無物)」, 『궁리의 글』, http://www.kungree.com/kreye/kre_ye81.htm.
- 허경 (2010) 「프랑스 철학의 우리말 번역과 수용」, 『인문과학연구』(강원대) 26: 435-461.
- 홍성욱 (2000)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 가지 제안」, 『동향과 전망』 44: 212-231.
- Balacescu, Iona et Stefanink, Bernd (2005)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pproche théorique en traduction’, *Meta* 50(2): 634-642.
- Ballard, Michel (2004) ‘La théorisation comme la structuration de l’action du traducteur’, *La linguistique* 40(2004-1): 51-66.
- Ballard, Michel (2006) ‘La traductologie, science d’observation’,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Études réunies par M. Ballard, Artois P U 179-194.
- Ballard, Michel (2007) ‘Pour un rééquilibrage épistémologique en traductologie’, *Quo vadis Translatologie?* Frank & Timme 17-34.
- Ballard, Michel (2008) ‘Textures’, *Atelier de traduction* 10: 203-221.

- Balliu, C. (2004): 'Jean-René Ladamiral. Une certaine philosophie de la traduction', *Transversalité*, 92. 51-57.
- Boulanger, Pier-Pascale (2006) 'Le chaos de la traduction et la traduction du chaos', *Meta* 51(1): 119-130.
- Cassin, Barbara (2007) 'Intraduisibles et mondialisation', *Hermès* 49: 197-204.
- Caussat, Pierre (2003) 'Simple aperçus sur quelques problèmes de la traduction philosophique', *Revue française de linguistique appliquée* 8(2003-2): 43-54.
- Chevalier, Jean-Claude, Launay, Michel et Molho, Maurice (1986) 'Pour une linguistique du signifiant', *Cahiers du CRIAR* 6: 95-99.
- Deshusses, Pierre (1997) 'Physique quantique et traduction'. *Nouveaux Cahiers d'Allemand*. «Théorie et pratique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15(4): 383-388.
- Durieux, Christine (2006) 'La traductologie: une discipline limitrophe',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Études réunies par M. Ballard, Artois Press Université 95-105.
- Foss, Sonia K. and Foss, Karen A. (2003)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Second Edition, Waveland P.
- Froeliger, Nicolas (2005) 'Placer le traducteur au coeur de la traductologie', *Meta* 50(4): 10
- Froeliger, Nicolas (2010) 'De la centralité du compromis en traduction et en traductologie', *La traduction: de la linguistique à la didactique* l'Université de Lille III, Texte en ligne 22.
- Heim, Michael Henry and Tymowski, Andrzej. W. (2006)(eds)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Social Science Texts*,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 Israël, Fortunato (2001) 'Pour une nouvelle conception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le modèle interprétatif', *Traduire*, 190-191: 9-18.
- Israël, Fortunato (2006) 'Souvent sens varie. Le traducteur face à «l'instabilité» de sens', *Le sens en traduction*, édité par M. Lederer, Lettres modernes

Minard 11-20.

- Jon Sung-Gi (2010) 'Poétique du traduire et science humaine du traduire', 『프랑스문화예술연구』33: 431-456.
- Ladmiral, Jean-René (1981) 'Éléments de traduction philosophique', *Langue française* 51: 19-34.
- Ladmiral, Jean-René (1986) 'Sourciers et ciblistes', *Revue d'esthétique* 33-42.
- Ladmiral, Jean-René (2003) 'Épistémologie de la traduction', *Traduire la langue, traduire la culture: Rencontres linguistiques méditerranéennes*, sous la direction de S. Mejri, Maisonneuve & Larose 147-168.
- Ladmiral, Jean-René (2004) 'La traduction entre en philosophie', *La traduction entre philosophie et littérature*, A. Lavieri(éd.), L'Harmattan Italia 24-65.
- Ladmiral, Jean-René (2005) 'Formation des traducteurs et traduction philosophique', *Meta* 50(1): 96-106.
- Ladmiral, Jean-René (2006a) 'Les sciences humaines sont-elles des sciences?', *Cahiers de l'École* 6: 15-17.
- Ladmiral, Jean-René (2006b) 'Préface', *Problématiques de la traduction*, K. Reiss, Ed. Economica 7-13.
- Ladmiral, Jean-René (2007) 'Traduction philosophique, traduction spécialisée', *Traduction spécialisée: pratiques, théories, formations*, E. Lavault-Olléron (éd.), Peter Lang 115-145.
- Ladmiral, Jean-René (2009) 'Le statut théorique du discours traductologique', Colloque International de Traduction, «La traduction sous tous ses aspects au centre de gravité du dialogue international», Istanbul 21-23 Octobre, Communications, Edité par H. Anmur, A. Bulut et A. Uras-Yilmaz 5-17.
- Ladmiral, Jean-René (2010) 'Sur le discours *mé*ta-traductif de la traductologie', *Meta* 55(1): 4-14.
- Poncharal, Bruno (2006) *Recommandations pour la traduction des textes de sciences humaines*, traduit de l'anglais,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 Poncharal, Bruno (2007) 'Le «Social Science Translation Project» et la traduction des sciences humaines', *Hermes* 49: 99-106.
- Price, Joshua M. (2008) 'Translating social science: Good versus bad utopianism', *Target* 20(2): 348-364.
- Pym, Anthony (1993) *Epistemological Problems in Translation and Its Teaching: A seminar for Thinking Students*, Edicions Caminade.
- Pym, Anthony (2010a)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New York: Routledge.
- Pym, Anthony (2010b) 'Translation Theory as Historical Problem-Solving', Based on a Public Lecture in 2010 hosted by the Rikkyo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June 5, 2010: 1-12.
- Pym, Anthony (2010c) 'Text and Risk in Translation', http://usuaris.tinet.cat/apym/on-line/translation/risk_analy_sis.pdf 11.
- Roberts, Roda P. (1995) 'Towards a Typology of Translations', *Hieronymus* 1: 69-78.
- Robitaille, Mathieu (2005) 'Recension de *L'éthique interrogative. Herméneutique et problématique de notre condition langagière*', Olivier Abel (2000, PUF), *Laval théologique et philosophique* 61(1): 207-218.
- Rochlitz, Reiner (2001) '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Raisons politiques* 2: 65-77.
- Sayah, M. et Simeon, M. (2007) 'La traductologie entre art et miroir', *Synergies*, «Monde arabe», 4, 65-87.
- Wicke, Anne et Fouache, Cécile (2006) 'Introduction', «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Méthodes & Enjeux» (Première partie), *La Tribune Internationale des Langues Vivantes* 41(6): 6.

[Abstract]

A Meta-reflection on the Translation Theories of the HumanitiesJon, Sung-Gi
(Korea University)

How should the texts of the humanities be translated? This is a question that troubles us all as we are witnessing what some call a «crisis of the humanities» as well as a relegation of our culture in translating texts of the humanities. We know that the translation is the basis of the Korean Humanities, largely indebted to the humanities translation, but there are not yet many translational studies thoroughly concerned with it. We need to reflect on all these problems, and that's what we suggest in the foreword, After examining the epistemology of translation studies in section 2 and the «scientificity» of translation theories of the humanities in section 3, we reconsider the problem of the relation between the text types and their translation in section 4. In section 5, we describe briefly several theories of explicit and implicit translation theories in the humanities. In section 6, we look at «translation as inquiry» and its implication in «urimal-lo hakmun-hagi» (doing humanities in Korean). Finally, we conclude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meta-reflections on the translation theories of the humanities not only for translating texts of the humanities, but also and particularly for the so-called «translational humanities», a project that we have been trying to develop for several years. Our hope is to see these «translational humanities» become a new paradigm for Korean Humanities, in the near future.

▶ Key Words: translation theories, humanities, epistemology, scientificity, text type,
translation as inquiry

전성기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jonsg@korea.ac.kr

관심분야: 번역인문학, 번역비평, 번역문법, 해석학, 수사학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